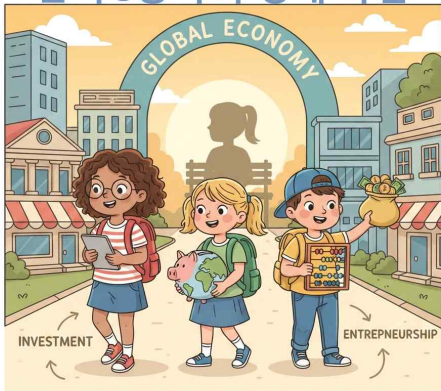


ADVENTURES IN ECONOMICS! 김씨 3총사의 경제 독립



GROUP BOOKIT 3기

금융교육 첫 번째 수업 후기 - 기부

- 참여그룹명 : 김씨3총사의 경제독립
- 참여인원 : 총 3명
- 참여연령대 : 1명(초3) & 2명(초1)
- 참여대상자: 김채은, 김성민, 김지아
- 참여방법 : 오프라인 참여

▶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 구성원 소개 : 3명의 아이 거주지 및 나이는 다르지만 **이종 사촌**임.
- 돈에 대한 생각을 먼저 나누었더니 '사고 파는 수단(매매)' '노동의 댓가(수입)으로 생각이 전부 였음.
- 그래서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정립하고 책을 읽고 난 뒤 다시 그 의미와 **경제교육에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음.

▶ 수업에 사용된 도서 소개



알렉스 스콧, 레모네이드의 기적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렉스 스콧이라는 소녀는 한 잔의 레모네이드로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집 앞에 열고 레모네이드를 팔아, 그 판매 금액을 소아암 치료법을 찾도록 병원에 기부했다. [알렉스 스콧, 레모네이드의 기적]은 이처럼 한 소녀가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나를 돕고, 남을 돕고 세상을 바꾼 기적의 이야기를 담았다.

퀼트 할머니의 선물

이 시대 아이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일깨우는 동화이다. 행복은 결코 물질적 풍요로 얻을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를 매혹적인 퀼트 양식의 수채화에 담아 들려준다. 아주 오랜 옛날, 안개가 자욱한 푸른 산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퀼트를 만드는 할머니. 왕궁 창고에 잔뜩 보물을 쌓아두고도 전혀 행복해하지 않는 욕심 많은 왕은,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간다. 과연 퀼트 할머니는 왕에게도 퀼트를 만들어 줄까? 퀼트 할머니가 왕에게 가르쳐 주는 행복의 비결은? 아름다운 퀼트 문양을 통해 이야기의 실마리를 추적하게 하는 예쁜 동화책이다.



▶ 아이들과 나누는 이야기

- '기부'의 뜻에 대해 알고 있니?
-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 '기부'를 많이 하는 月은 언제 일것 같애?
- 책을 읽고 나서 '기부'에 대한 나의 생각의 변화는?
-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부'가 있다면?
- 혹은 앞으로 하고싶은 '기부' '나눔실천' 계획은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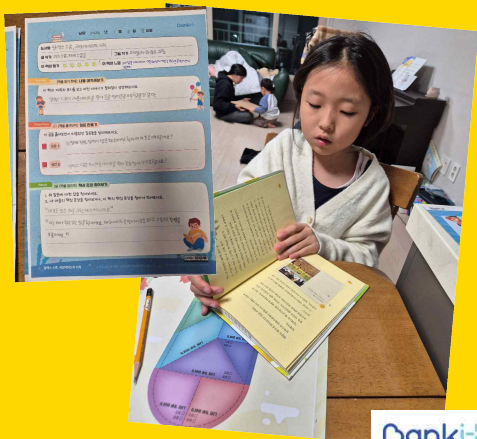
▶ 독서활동 후 익힌 개념들

- '기부'와 '행복'의 연관성
- '기부'와 '나눔'의 긍정적인 영향
- '나눔'을 실천 했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 북키즈 활동 후 아이들의 생각 변화

김채은 (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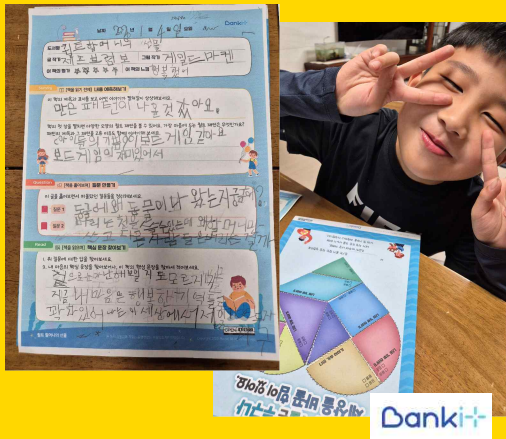
“알렉스 스콧, 레모네이드의 기적을 읽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소아암에 걸린 아이가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레모네이드를 팔아 다른 아이들을 도울 생각을 하다니 그 용기가 나름 충격이었다. 레모네이드 한잔 판매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구나.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 북키즈 활동 후 아이들의 생각 변화

김성민(초1)

퀼트 할머니의 선물에서 퀼트가 뭔지도 몰랐다. 버려질 수 있는 천 조각 하나가 전부 모여 큰 이불이 되었을때 신기했다. 나도 물건에 욕심부리지 않고 소중히 아껴쓰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북키즈 활동 후 아이들의 생각 변화

김지아 (초1)

행복하다는 것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누는 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왕'을 보고 배웠다. 일상생활 속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이 있을지 가족들과 더 이야기 해보고 싶다.



▶ 북키즈 활동 후 성과 및 후기

❖ 성과

1. '나눔'의 가치를 이해
2. '행복'의 척도가 다양함을 이해
3. '돈'이 다양한 구조로 이동 됨을 이해

❖ 좋았던 점

1. '물질적인 채움'이 '행복의 척도'가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됨
2. 다른이의 삶을 통해 생각을 실천 했을 때의 변화를 관찰 하게 됨
3. '행복'에 대한 생각의 관점이 이동 됨

❖ 아쉬웠던 점

1. '퀵트할머니의 선물' 보다 오히려 레몬에이드의 기적을 직관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더 쉬웠다고 저학년 두 아이가 이야기 함.
2. 기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낌

▶ '생활속 기부'를 실천 - 일상이 되기 까지

1. 당근마켓을 이용한 '도서' 및 '장난감' 나눔 실천
2. '맥도날드' 골든버거 '100원'의 기부 참여
3. 아프리카 친구들 월 후원금 참여
4. 동네 마켓 장 본 뒤 잔돈 모아 '불이웃 돕기 저금통' 기부 참여
5. 네이버 콩 기부 참여

작은 실천 모여 큰 힘이 될 것을 아이들이 배웠기에 각 가정별로 이야기를 나눈 뒤 자발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 첫 수업을 마무리 하며 - 엄마들의 후일담

: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잃은 ‘연필’과 ‘지우개’를 많이 줍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주인은 없네요. 소중한 것이면 어떻게든 찾을 텐데... 새로 사는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아이들이라 책을 읽고 나서 서로 반성하며 앞으로의 나눔을 실천하며 살자고 다짐을 했네요. 생각의 변화를 주는 시간이라서 경제교육 이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경제교육’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따뜻해 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부라는걸 아이의 시선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책과 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기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아이와 함께 기부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중고마켓 드림부터 시작하여 일상속 기부를 찾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곳곳에 기부를 할 수 있는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더불어 그간 집안에 주인을 잃은 물건들도 ‘나눔’을 통해 새 주인을 찾는걸 보고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집도 비워지고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